

欠落되어 完形을 짐작할 수는 없으나 長方形에 가까운 佛座形式을 이루고 佛身 光背와 一石으로 造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當時에 流行하던 一光三尊佛의 樣式一部를 알 수 있는 바에 속하는 現存唯一의 石像遺例로서는 全北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 胎峯寺의 三尊石佛이 百濟末 七世紀 中葉의 作品으로 注目되고 있을 뿐이다. (註) 現在 알려진 百濟의 金銅 三尊佛 數例 또는 上學한 摩崖三尊이 모두 立像임에 比하여 이 遺例가 本尊座像 兩脇侍 立像의 樣式을 表示하고 있음은 그 臺座樣式의 特異함과 더불어 當代 三尊佛 樣式에 對한 考察을 위하여 매우 貴重한 三國期 石像資料라고 할 수 있는 點이 同時에 日本 初期의 同一樣式에 속하는 泐像과도 比較할 수 있는 點이 또한 注目되는 바이다. (七月三日)

註：公州 正安面 平正里에서 새로 發見된 一光三尊石像(高三·五cm)은

新羅統初에 百濟故土에서 造成된 作品으로서 樣式系列에서 이 遺品

과 比較할 수 있을 것이다. (拙稿「公州石像佛像의 調査」「東國史學」

第六輯一九六〇年)

皇龍寺址出土瓦數種

洪 思 俊

西紀一九六一年十一月十三日字 慶州東方 普門水組 貯水地의 市內水路 工事가 進行하던 九黃里 즉 芬皇寺와 皇龍寺址界를 通過하는 水路掘鑿에서 八葉蓮瓣文槿瓦(完)와 其他 忍冬文木새(一部缺) 鬼面瓦(全) 花瓶으로 推測되는 土瓶(口缺)等이 一括出土 入手되었다. 이 遺品들은 비록 上記 兩寺界에서 發見되었으나 皇龍寺의 講堂址附近 東北方에 該當됨으로 皇龍寺에서 使用된 것으로 짐작된다.

1, 八瓣蓮花文槿瓦(完) 진灰色이고 製品이 粗雜하며 蓮子房에 比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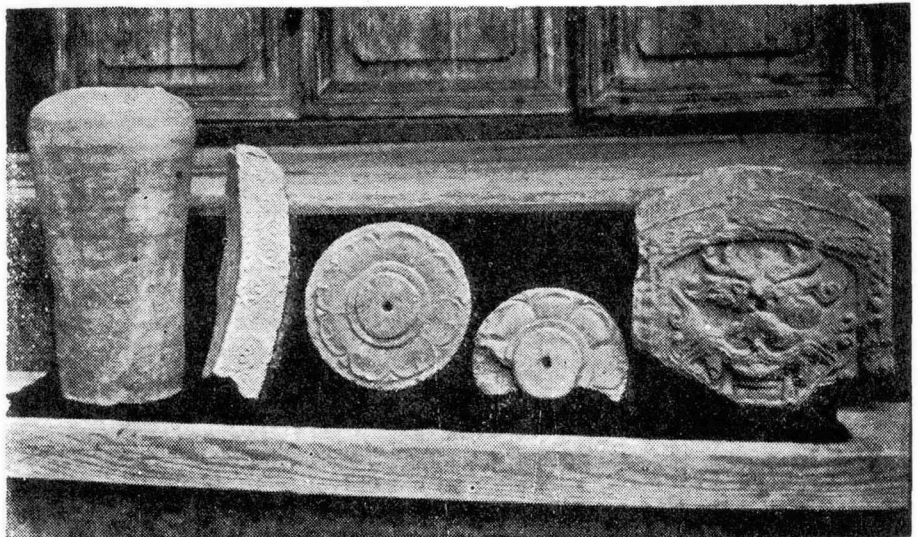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蓮瓣이 短形이다.

子房正中에는 直徑 四分小孔이 뚫려 鐵釘을 박은 곳이라 본다. 八瓣蓮花文周緣에는 二分強의 幅으로 周廻하여졌다. 厚五分 直徑 六寸四分 (寫眞右에서三)

2, 今年四月에 또

다시 上記槿瓦와 같은 文樣瓦가 出土되었는데 前者와 同一한 手法으로 製作되었고 子房 及 蓮瓣 大도等大하다. 다만 花文周緣에 平帶가 둘러있지 않음따름이다. 그리고 厚가前者것 보다 四分五厘가 두터웁고 圓周에 朱色을 바른 것이 지금도 남아볼 수 있으며 그 朱色을 칠한 瓦當의 前面(畫面)둘레가 後面둘레보다 작은 것이 特色이다. 厚 九分五厘 直徑 五寸七分(寫眞右에서二) 同時에 前者瓦當과 一括出土된 遺物들은 鬼面瓦로 普通 出土하는 것이며(높이 一尺一寸四分 肩幅 六寸五分 底邊 四寸九分 寫眞右二) 忍冬文木새 亦是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上下 높이 一寸九分 橫



長九寸七分 文樣이 있는 두께一寸 寫眞左에서 二) 그리고 花瓶으로 推測되는 口缺의 土瓶이 出土되었는데 마치 高麗花瓶과 恰似하다. 現高一尺一寸四分 肩巾六寸五分 底徑四寸九分 寫眞左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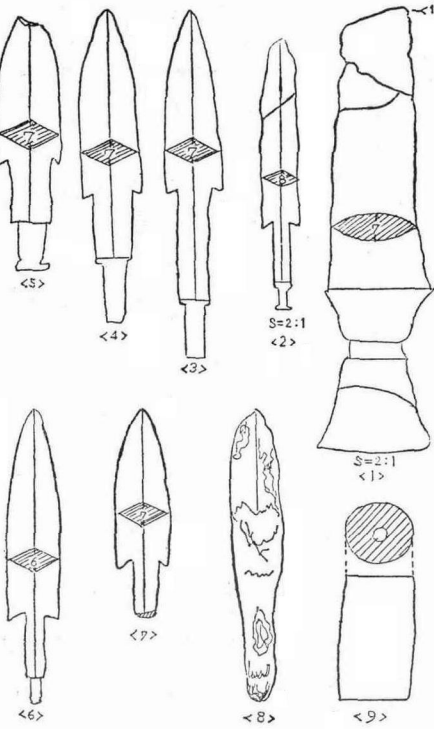
公州 花月里 出土의 石器

金 永 鎬

公州에서 禮山街道로 銅川을 지나 約四里쯤 가면 維鳩川이 앞으로 흐르고 川邊東쪽에는 順坦한 黃土丘陵地帶가 連續되고 있다. 出土地點은 公州郡 寺谷面 花月里 林野 六九番地 崔仁洙氏의 果樹園인데 整地作業中 五月十三日 發見. 公州에서 初有의 一括遺物이므로 紹介한다.

1、二段柄式石劍(圖面(1))一個

灰色粘板岩의 磨製石劍으로서 劍身一部가 缺失되고 二段柄式의 石劍



四圖 3-1-9 2는 等大 單位는 1-1-5 是 粘板岩 1-1-8 是 磨製石 9 是 磨製石 天河石製인

圖面 3-1-9 2는 等大 單位는 1-1-5 是 粘板岩 6-1-8 是 黑曜石 9 是 碧綠色

天河石製인

이다. 全長二三·八cm 劍身長一五·二cm 劍身과 柄部의 橫斷面은 杏仁形

2、異形莖式石鏃(圖面(2)(5))二個

모두 黃白色粘板岩의 磨製石鏃인데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鏃身에서 莖部一段까지 連續되었으며 莖一段部의 橫斷面은 六角形 二段部의 斷面은 長方形으로 莖部 끝의 樣式이 異形을 이루고 있다. 凸(2)의 總長 一四·三cm 鏃身長 九·八cm (5)의 總長 六·八cm 鏃身長 三·八cm

3、二段莖式石鏃(圖面(3)(4))二個

(3)은 灰色粘板岩 (4)는 黃色粘板岩 모두 二段莖式 磨製石鏃으로서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莖部一段까지 連續되었으며 莖一段部의 橫斷面은 六角形 二段部는 長方形 (3)의 總長 九·二cm 鏃身長 四·八cm (4)의 總長 八·四cm 鏃身長 五cm

4、二段柄式石鏃(圖面(6)(7))二個

黑曜石磨製石鏃으로서 鏃身에는 陵線이 솟아 一段莖部까지 連續되었으며 莖部一段의 橫斷面은 六角形 柄部는 丸形. (6)의 總長 七·九cm 鏃身長 五·五cm (7)의 總長 五·五cm 鏃身長 四·二cm

5、未完成石鏃(圖面(8))一個

黑曜石으로 總長이 七·八cm

6、管玉(圖面(9))一個

碧綠色天河石의 管玉인데 鑿孔의 方式은 兩端에서 中心을 잡아 貫通케 하였으며 아름다운 光澤이 나타나고 있다. 中間이 불른데 總長 三·三cm 直徑 一·七cm 孔徑 四mm

東亞大藏 金銅佛과 康熙銘砲

鄭 永 鎬

지난 一月 八日 洪思俊氏와 함께 東亞大博物館에서 左記 兩品을 注目